MY BIBLE FIRST B49

물 위를 걸은 베드로

아메리카 황조롱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기에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Table of contents

목차

01 성경말씀 회상하기

02 중심생각 연결하기

03 천연계로 확장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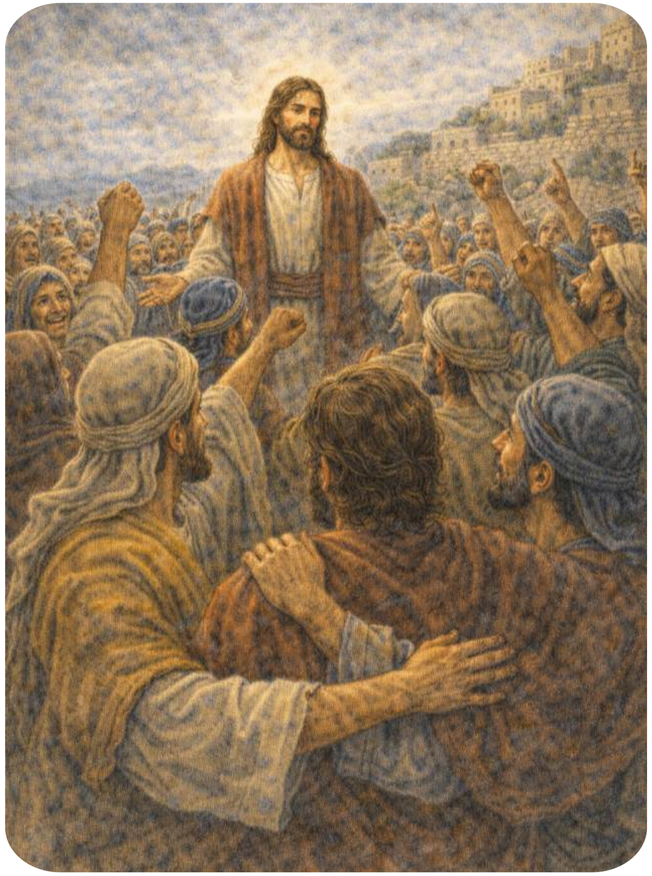
04 성경학습활동 1

05 성경학습활동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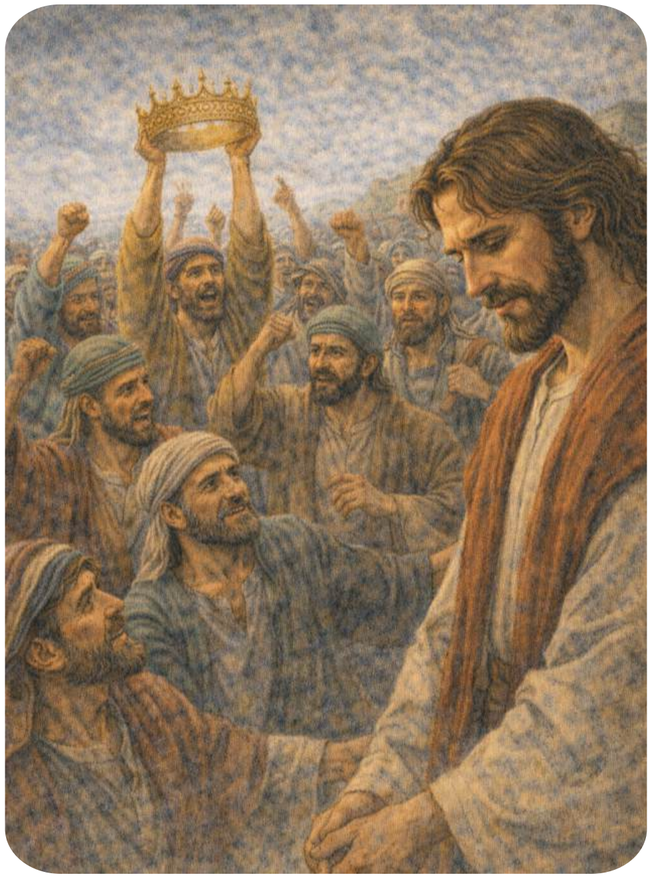
예수님은 한 소년이 가져온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에 크게 놀랐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니
지금 당장 왕이 되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들도 그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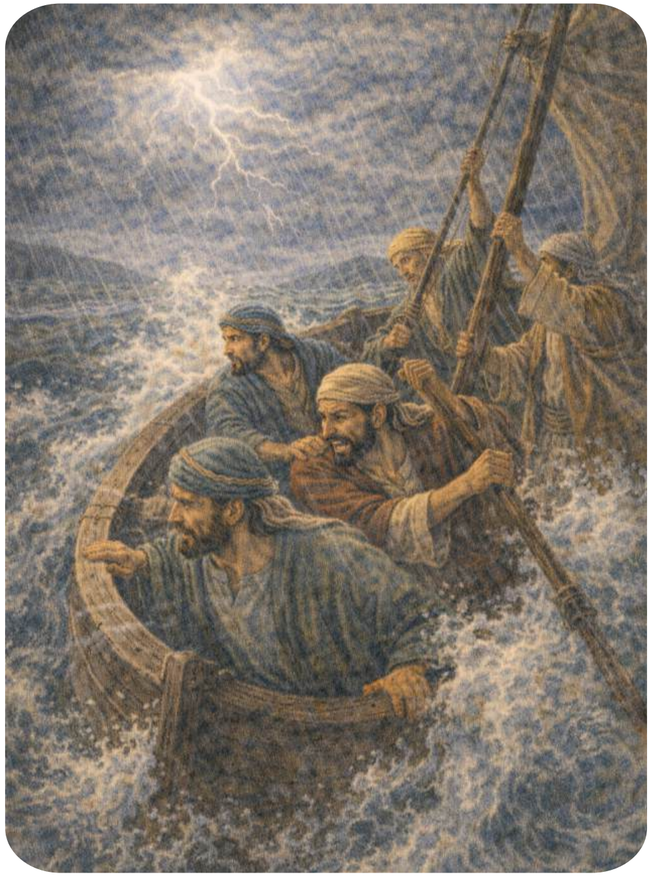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계획을 알고 계셨어요.
지금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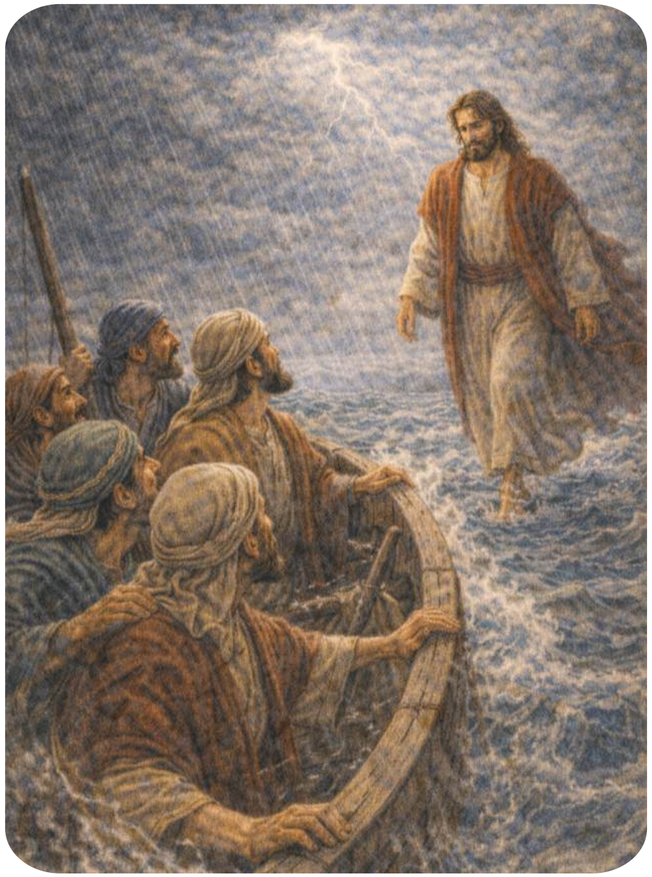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넜어요.

마음은 무겁고 생각은 복잡했어요.
그때 갑자기 거센 바람과 큰 파도가 일어났어요.



파도가 점점 커지는것 같더니 아뿔사...!
큰 폭풍을 만났어요.

바람과 파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폭풍 속으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 두려움이 조금 사라졌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었어요.

하지만 파도를 보자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 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세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까지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메리카 황조롱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매

아메리카 황조롱이는 가장
작은 매 중 하나예요.

몸집은 작지만 하늘을 날며
사냥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황조롱이는 나무 구멍이나 상자 안에 둥지를 만들어요.
부모는 번갈아 알을 품고 새끼를 돌봐요.





새끼 황조롱이는 빨리 자라지만 혼자 살 수는 없어요.
먹이 잡는 법과 위험을 피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새끼 황조롱이는 혼자 있을 때 쉽게 겁을 먹어요.
하지만 부모가 근처에 있으면 조용해지고 안정돼요.
부모의 존재 자체가 가장 큰 보호예요.

자랄 때까지 곁에 있어요

황조롱이 새끼는 혼자서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 곁에서 보호받으며
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폭풍 속 제자들처럼 우리도 두려울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가까이 오셔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04 성경학습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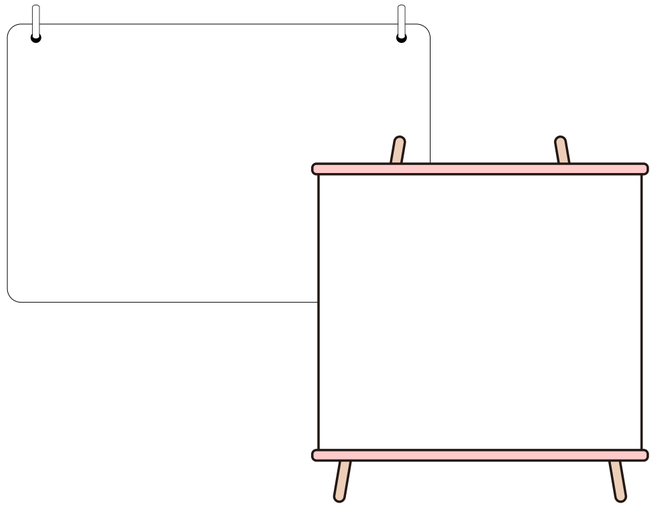
「폭풍에서 평안으로」 마음 바다 그리기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도 제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두려움에 흔들리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참된 평안을 주셨어요.
파도를 보며 무서워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손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폭풍처럼 흔들리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가까이 오셔서 붙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활동을 통해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찾아오는 평안을 느끼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보세요.

「폭풍에서 평안으로」 마음 바다 그리기

<준비물>



- 도화지 혹은 캔버스



- 색연필 혹은 물감



- 예수님 도안

< 예수님 도안 >



* 점선을 따라 오리세요.

「폭풍에서 평안으로」 마음 바다 그리기

<활동 방법>

1. 성경 이야기 다시 들려주기
-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은 어떤 상황을 만났을까요?
- 큰 폭풍과 파도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폭풍 속으로 찾아오셨어요.
- 예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2. 마음 살펴보기
- 폭풍 속에 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지 이야기 나눈다.
-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생각해 본다.
- 나도 무섭거나 걱정될 때가 있었는지 떠올려 본다.

3. 마음 바다 그리기 활동
- 도화지를 반으로 나누어 한쪽에는 '폭풍 속 바다',
  다른 한쪽에는 '평안한 바다'를 그려본다.
- 폭풍 바다는 어두운 색과 거친 선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평안한 바다는 밝은 색과 잔잔한 물결로 표현한다.
- 가운데에 예수님 도안을 잘라 붙이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
  달라지는 모습을 나타낸다.

4. 그림 나누며 마무리하기
- 완성한 그림을 함께 보며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이야기 나눈다.
-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을 나눈다.
-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억하며, 우리도 두려울 때 예수님을
  찾기로 다짐하며 활동을 마무리한다.

04 성경학습활동

「폭풍에서 평안으로」
마음 바다 그리기

오늘 우리는 폭풍 같은 바다와 평안한 바다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어요.

제자들도 큰 폭풍 속에서 많이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이 오시자 그 마음이 점점 평안해졌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걱정되고 무서울 때가 있지만,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마음에 꼭 기억하면서, 언제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바래요.

04 성경학습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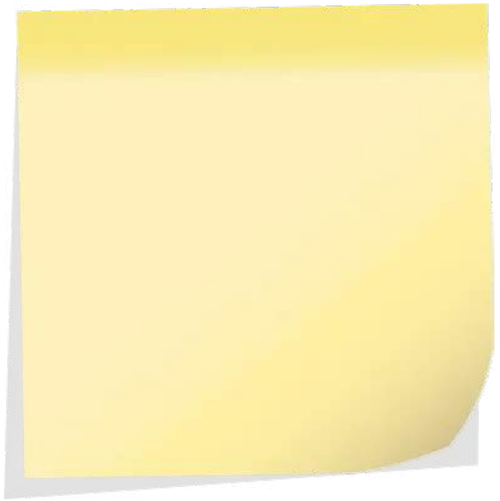
두려움 주머니, 기도로 바꾸기



우리의 마음에는 때때로 무섭고 걱정되는 생각들이 생겨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 어둡고 낯선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커지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도 언제나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에도
귀 기울이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활동을 통해 나의 두려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바꾸어 보세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찾아오는
평안과 용기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주머니, 기도로 바꾸기

<준비물>



- 포스트잇



- 연필



- 바구니

04 성경학습활동

두려움 주머니, 기도로 바꾸기

<활동 방법>

1. 성경 이야기 다시 들려주기
- 폭풍 속에서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 제자들은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어요.
- 예수님은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2. 마음 살펴보기
- 우리도 생활 속에서 무섭거나 걱정되는 순간이 있는지 이야기 나눈다.
-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자유롭게 이야기 나눈다.

3. 두려움 주머니, 기도로 바꾸기 활동
- 포스트잇이나 종이에 “내가 무서울 때”를 그림이나 글로 표현한다.
- 완성한 종이를 ‘두려움 주머니’ 상자에 넣는다.
- 상자에서 하나씩 꺼내어 함께 읽고, “이럴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야기 나눈다.
- 기도 틀을 보며 한 문장 기도를 만들어 말해본다. “하나님, 제가 ___할 때 무서워요. 저를 ___해 주세요.”

4. 기도 나누며 마무리하기
-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음을 나눈다.
-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기도를 함께 드리며 마음을 모은다.

두려움 주머니, 기도로 바꾸기

내가 무서울 때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바꿔요!



1 두려움 표현하기

내가 무서울 때를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요.



2 두려움 주머니에 넣기

완성한 종이를
'두려움 주머니'에
넣어요.



3 함께 나누고 기도로 바꾸기

하나씩 꺼내어 읽고,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할까?"
이야기 나눠요.

기도 틀을 보고
나만의 기도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 제가 _____ 할 때 무서워요.
저를 _____ 해 주세요.

4 기도하기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로 드려요.



기도 예시문

- 하나님, 혼자 있을 때 무서워요. 저와 함께해 주세요.
- 하나님, 어두운 곳이 무서워요. 저를 지켜주세요.
- 하나님, 친구랑 싸울까 봐 걱정돼요. 제 마음을 도와주세요.
- 하나님, 아플까 봐 무서워요. 저를 지켜주세요.

기억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

행복한 안식일 보내세요

